

2017년 12월 17일, 한림읍 귀덕2리 귀덕2리노인회관, 송정희 조사.
고순화(여, 1937년생, 한림읍 귀덕2리)

- 줄거리: 옛날에는 이름이 똑같으면 저승사자가 사람을 잘못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짓지 않았다. 저승사자가 그 집에 사람을 잡으러 오면 문전신이 자신은 이 집에서 잘 얻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여 저승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. 그렇게 문전신을 집의 수호신처럼 여겨 문전제를 지낸다.

[제보자]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제사를 지냅니다. 제사를 지낼 때 문호상이 있어요. 문호상 놓고 조왕에 뭐 걸명을 헌다고 합니다. 예. 걸명 헌다 허는디, 그 문호상이런 헌 건 옛날에 남선비엔도 허고 그디 구신이 들어와도 대문으로 들어오고 인간이 들어와도 큰 문으로 들어오고 도사가 들어와도 큰 문으로 들어옵네쎈. 이것이 아 멩헤도 대문이 들어오는 입구가 쥔 큰 문인 쟁이우다.

게난 그레 저싱에서 허는 말이 아무 집이나 강. 게나네 사춘성님이라도 같은 일름은 안 지운다. 복남이든 복남이 송남이 안 질루고 7튼 성에서 쏜 사름 일름 지운다허는 이유가 7튼 성제가 7찌 강 이름을 지우든 이 사름 돌아오렌 혈 적 에 이 사름 돌아왔덴 허카부덴 그추룩 이름을 스춘성제 이름을 지우지 말렌 헛 쥔 그 속담 잇인 이유가 이제

“아무 집이 강 아무 사름 데려 오렌.”

허난, 그 사름을 이제 데리레 완. 게난 집 주연이 사자님이 오난

“우리 집은 하도 문전에 정성 굿으로 제사헌 때 제사혈 때마다 걸명을 정 먹기 때문에 이 주연을 대문으로, 난 허가 못허켄.”

게난 사자님이 이젠 못허는 거라. 못허난, 일곱에 들언 우리 마당이나 돌안 저 싱으로 들어가든 사자님한테 욱 안 들켄 허난 마당을

“이어차, 이어차.”

일곱 사름이 돌아도 절대 못 돌르는 거라.

“안 댜켄.”

이제 정지로 우리 들어가그네. 저 조왕으로 들어가그네 이 사름을 돌아가젠, 저싱으로 돌아가젠, 이제 또 조왕으로 들어가난, 조왕에서 이제 조왕님이 허는 말이, 게난 제사를 지내믄 문전 헌 다음에 조왕에 걸명합니다게. 걸명헌 이유가 조왕으로도 못 들어간덴, 못 들어간덴 허난 이젠 조왕으로도 못 들어가고 대문으로도, 경 허난 우리가 제스, 선생님네는 몰라도 제스 지내믄양, 조왕에 허고 문전에 허는 것이 그 이유옌마씨. 이유가.

[조사자] 사자가 못 들어오게 허는 문지기 역할을 허는구나.

[제보자] 어. 우리가 인간이 살젠 허믄 굿혈 때도 문전에 문여 허고 조왕에 문여 운땀으로 합니다게. 게난 그 이윤 그거옌마씨.

- 핵심어: 문호상, 문전제, 조왕(부엌), 저승사자, 대문, 굿, 문지기, 제사, 남선비, 마당, 걸명(헌식)